

독일 역사에 파괴된 삶의 드라마

베른하르트 슈링크의 신작 추리소설 화제



신작 추리소설을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는
베른하르트 슈링크.

법률가이자 추리 작가인 베른하르트 슈링크의 신작 추리소설 《낭독자(Der Vorleser)》는 올 가을 가장 주목받는 신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야기는 15세 소년과 그보다 20살이 많은 중년 여인과의 비밀스런 사랑에서 시작하여 차츰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법률 소설로 진행되다가 불행한 운명과 죄업에 대한 정신적 상태를 묘사한 심리 드라마로 발전한다. 그러나 분량은 207페이지에 달할 뿐이다. 사실 그대로를 설명할 수 있다면 아무리 무게를 지닌 주제일지라도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실제로 독일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인 소년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예전에 나치의 강제 수용소 감시자였던 사실을 알지 못한다. 여인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우슈비츠 소송 사건에서 피고로 출두한다. 법학도가 되어 소송 사건을 참관하던 소년은 그제야 여인의 과거를 목도한다. 그리고 소년은 자신들의 죄과를 경제 성장의 기적 속에 안전하게 은폐해 두었다고 믿고 있는 나치에 대해 서서히 도덕적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1944년 빌레펠트에서 출생한 슈링크는 법학을 전공하고 본과 베를린에서 법률가로 활동 중이며 1990년부터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에서 국가법과 공법(公法)을 강의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슈링크는 이제까지 발표한 세 편의 추리소설 중 한편은 영화로 만들어지고 두 편은 추리소설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작가로서의 명성을 굳히기도 했다.

슈링크의 첫번째 소설 《젤프스 유스티츠(Selbs Justiz)》(1987)는 법조계의 동료인 발터 포프 함께 저술한 것으로, 당시에는 비평가들의 이견이 분분했던 독특한 장르로

받아들여졌다. 법률가들이 추리소설을 즐겨 읽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설을 직접 집필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올 가을 출판계를 기습한 슈링크의 신작 소설 《낭독자》와 더불어 바뀌어질 듯하다.

작가는 망가져버린 극적인 삶을 추적하는 형사가 되어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차근차근 전달해 준다. 앞부분에서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애정 어린 장면에서 소년은 연상의 여인인 한나에게 이야기를 곧잘 읽어 주곤 하는데, 이는 나중에 한나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된다. 범정은 강제수용소의 감시자였던 한나가 어린 소녀들을 가스실로 데려가기 전에 이야기를 읽도록 시킨 행동을 사디즘으로 규정한다. 한나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지금은 법학을 전공하는 청년이 되었지만 예전에 한나에게 이야기를 읽어 주곤 하던 소년만이 한나의 비밀을 알고 있을 뿐이다. 결국 한나는 유죄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읽고 쓰는 법을 배우다 18년 뒤 사면받는 날 자살한다. 이러한 행동이 법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죄의 고백이었는지에 대한 대답은 주어지지 않는다.

작가는 평생 동안 여인과의 만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한 남자의 회상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간다.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도덕적 감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신중하게, 때론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밀하고 명백한 서술 방식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믿게끔 한다. 이는 또한 작가의 이력과 작품에 등장하는 서술자의 이력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관해 글을 쓸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어떠한지는 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저자에게 있어서 이야기의 사실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문학이란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진실을 창조해 내는 작업인데다, 더욱이 이 이야기는 전체 독일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기 때문이다.

역사와 전통의 새로운 활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으로 삼는 독일인들의 장인 정신은 서점업계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독일의 공업도시인 에센에서 225년 동안 출판 시장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 온 베테커 서점은 이제 그 규모를 확장하여 출판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983년부터 주터 그룹(A. Sutter)에 속하게 된 베테커 서점은 지난 1992년 9월 전체 면적이 2000 평방미터에 달하는 대규모의 증축 공사를 마친 후 이미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베테커 서점의 꾸준한 성장률은 서점계의 평균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이는 곧 지난 8월에 개업한 밀하임 지사 설립으로 이어졌다. 밀하임의 쇼핑 센터 포럼 시티(Forum City) 안에 자리잡은 베테커 서점은 지난 8월 31일 200여명의 인사가 초대된 가운데 화려한 개점 행사를 벌였다.

루르 공업 지역에 속해 있으며, 약 18만 명의 인구를 지닌 밀하임은 불과 9.4 퍼센트의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는 중소 공업도시이다. 이곳을 최적지로 결정한 베테커 서점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도시의 구매력이 주변 지역인 에센이나 라인-루르-중심지로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매상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베테커 서점의 개점과 더불어 포럼 시티도 소유주가 바뀐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3만 평방 미터의 총 면적에 110개의 점포가 들어선 쇼핑 센터는 하루 평균 4만 명에서 5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찾아드는 중심 상권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제 그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체 쇼핑 센터의 두 층을 차지하는 베테커 서점에 찾아들어 그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울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쇼핑 센터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1층에는 베스트셀러와 여행서, 문고본, 특매 도서를 진열하고 면적이 두 배에 달하는 2층에는 대중문화, 역사, 정치, 경제, 자연과학, 예술, 아동 및 청소년 도서, 취미와



225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베데커 서점이 새롭게 변신해 출판시장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용서 등으로 꾸며졌다. 또한 뉴 미디어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매장에는 수백 가지의 소프트웨어와 게임타이틀을 갖추어 두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매장에 설치된 4대의 컴퓨터 중 두대는 제시용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나머지 두대로는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다.

그밖에도 본사의 지원을 받아 베데커 서점에서는 작가의 작품 낭독회와 멀티미디어 출판물의 홍보 전시회 등 여러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뉴미디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PC를 다룰 줄 아는 대학생들 시간제로 고용하여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규칙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시대에 부합하는 부단한 노력이야말로 베데커 서점이 그토록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도 더욱 발전하고 변모한 모습을 지니게 한 원동력이 아닐 수 없다. 200년 이상 서점의 전통을 지켜온 것도 놀랍거니와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맞춰 새롭게 서점문화의 일궈나가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문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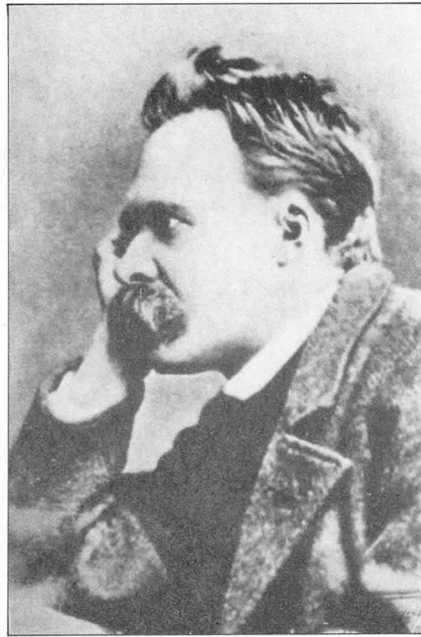
필로넨코의 새로운 니체해석

프랑스의 리브르 드 포세 출판사에서 출간된 알렉시스 필로넨코의 니체 연구서<니

체-웃음과 비극 Nietzsche-Le rire et le tragique>는 프랑스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읽고 있는 니체에 대한 관심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입문서이다. 니체의 철학이 그리 명료하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필로넨코는 명료하지 않은 철학자의 연구로부터 즐거움을 발견하는 매우 드문 학자다.

니체 같은 철학자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명징함'이라면 이러한 책임수룩 철학이 지나온 진정한 과정과 정확한 주석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즉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부분이라도 쉽게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서양철학사 일반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알렉시스 필로넨코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이 책에서 충족시켜 준다.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칸트와 쇼펜하우어를 전공한 그는 철학을 대중의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 사람(Vulgarisateur)이라기보다는 철학의 교육자(Pédagogue)이다.

필로넨코가 니체를 읽는 방법은 전혀 예상할 수 없으면서도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다. 그의 책에서는 어떤 과장이나 애매함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신중함과 유쾌함이 지배하고 있을 뿐이다. 책 속에서 니체는 니체의 이름인 프리드리히로 등장한다. 니체는 독자의 즐거운 친구가 된다. 필로넨코는 니체가 독일어로 쓴 작가 중 가장 위대한 작가라고 말한다. 니체에게는 문학적인 전례가 없었다는 의미에서 '발디딜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1844-1900).

땅'이 없었으며 따라서 그는 독일 문학에서 '문학적 배신자'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필로넨코는 우파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항상 악용되어 왔던 '권력에의 의지'나 '초인' 등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으며 하이에거적인 해석에도 반론을 가하고 있다. 니체는 결코 예언자나 계시받은 사람이 아니라 번개같은 언어와 승리의 환희로 가득 찬 '젊은 감성'에 충실한 인간이었다는 것이다. 필로넨코는 '한계 les limites', '방향 les errances', '기쁨 les joies', '명료함 limpiment', '쾌활함 gaillardement' 등을 주요 개념으로 삼아 지금까지 안개에 가려진 듯한 인상을 주었던 니체로부터 생명력 있는 이성을 이끌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따뜻한 시선에 닿은 다양한 인물들

소설의 등장인물에는 작가의 개인적인 삶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작가이자 어머니이자 교육자인 마르틴느 로비에르의 소설에는 언제나 과거의 인물들이 상상을 통해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번에 간행된 소설 <무당 벌레들 Les bêtes à bon dieu>의 주인공 페터 슈트름의 이미지는 1990년 펴낸 자신의 소설 <새끼 갈매기의 비상 Le vol du grisard>

(플라마리옹 刊)에서 극적으로 묘사한 조각가와 1991년 <바다의 위험 Des hasards de lamer>(플라마리옹 刊)에 등장한 전쟁 중 사망한 독일 병사의 성격이 결합되어 만들어졌다.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진 이 소설의 구성적인 특징은 소나타에서 빠르기를 나타내는 라르고,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레그레토의 4개 흐름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소설은 전화벨이 울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클라라사 앙젤(그녀 역시 작가이자 어머니인 동시에 교육자이다)은 매우 이상한 전화를 받는다. 그녀가 쓴 소설의 주인공인 페터 슈트름이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앙젤 이외에 2명의 사람도 페터 슈트름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된다. 그 하나는 쌍둥이 임신 전문의인 볼프강 슈타인으로 그에게는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같이 탈출했던 페터 슈트름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은 퇴직한 우체부 가스통 보프레 그는 1944년 페터 슈트름이라는 독일 군을 고발한 과거가 있다. 가책을 받은 보프레의 아내 제르멘느는 페터 슈트름의 무덤을 돌보기 위해 묘지의 비밀거처에 숨어 지내고 있다.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페터 슈트름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 페터의 유명인가?" 그들 모두는 각각의 페터 슈트름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 더불어 등장인물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작가는 정신분석학적 모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틴느 로비에르는 단순히 분석적인 시선이 아닌 인간미 있는 매우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작품 전체의 무게중심을 앙젤의 소설 <피에르의 손>에 싣고서.

줄곧 서스펜스를 유지하면서 등장인물들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성격을 서술해가는 이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만남은 준비된 운명과의 극적인 조우인 동시에 소설상에 새로운 비약을 제공해 준다. 소설은 새로 등장한 작가 아나이스가 앙젤의 소설을 다시 쓰는 것으로 끝이 난다. <김택>